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건의

전북자치도-전건협 전북, 대형건설사 본사 합동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회장 임근홍)가 전주 서신동 갈나무골 주택재건축사업 등과 군산 나운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사업 등 그리고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을 제고를 건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을 합동으로 방문했다.

도와 협회는 송도사옥에서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 이상과 지역자재 및 장비와 인력 사용률 80% 이상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북자치도 지역정책과 이예진 과장은 "도내 대형 건설 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

당 사업의 홍보와 기업 이미지 거양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도내 업체에 대한 안내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지역발전엔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하는 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와 민간 합동세일즈단을 구성하여 도내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수주 물량 확대를 지속적 건의 및 홍보책자 등을 대형건설사에 발송하는 등 홍보 세일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도와 협회는 지난 3월간 새만금 입주 12개 투자기업 본사를 순회 방문해 공장신축에 따른 지역건설업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가 전북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 등을 건의하기 위해 9일 인천광역시 소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을 합동으로 방문했다.

체 수주 확대와 지역 생산 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에 새만금 입주기업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도내 건설단체(종합, 전문 기계설비)가 함께하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오는 22일 체결하

기로 하였다. 앞으로 도와 협회의 민간 합동세일즈단은 고급리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세일즈 활동을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김욱기기자



바이오진흥원이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 BIO KOREA 2024에 참가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BIO KOREA 참가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기업 유치 위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8~10일 3일간 BIO KOREA 2024에 참가해 전북자치도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전시회 중 하나로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55개국 641개 기업이 참여, 3만여명이 관람하는 국제행사이다.

바이오진흥원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지를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오기업이 우리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알리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업무협약을 추진한 재생

의료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등도 참가하였으며 각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전시회 중 하나로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55개국 641개 기업이 참여, 3만여명이 관람하는 국제행사이다.

바이오진흥원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지를 넘어 세계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오기업이 우리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알리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업무협약을 추진한 재생의료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등도 참가하였으며 각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전시회 중 하나로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55개국 641개 기업이 참여, 3만여명이 관람하는 국제행사이다.

/김욱기기자

한국식품연구원, 분석지원 온라인 서비스 2년째 진행

식품 업체 대상, 단백질·비타민·병원성 미생물 등 식품 성분 분석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 식품산업연구본부 식품분석연구센터는 식품 업체 대상, 단백질·비타민·병원성 미생물 등 다양한 식품 성분 분석의뢰를 온라인으로 받아 검사한 뒤 성적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약 2년째 진행 중이다.

식품연의 '분석지원 온라인 서비스'는 2022년 7월 1일 공식 시작했으며, 지난해엔 445건(총 시료 수 1,384건)을 분석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험분석을 의뢰·접수하기 위한 서류를 직접 방문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연 '분석지

원 온라인 서비스(<https://www.kfri.re.kr/analysis>)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회원으로 가입(사업자등록증 필요)하면 바로 시험분석을 요청·접수할 수 있다.

식품분석연구센터 이은열 선임기술원은 "온라인 성적서 발급은 원본 확인을 위해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의뢰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하도록 해 우편 발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연 식품분석연구센터에선 단백질·지방·탄수화물 등 9가지 영양 성분 외에 중금속·무기질·비타민

·병원성 미생물 등의 검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추·인삼·마늘의 기능성분인 캡사이신·진세노사이드·알리신 등 식품의 영양성분·기능성 성분 등 54종류의 이화학 항목과 세균수·대장균 등 16종류의 미생물 항목을 분석하며, 식품 방사능 검사는 하지 않는다.

식품산업연구본부 서동원 본부장은 "우리는 식품업체 대상 분석지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욱기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근로자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9일 오전 공사 임직원 및 건설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5가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시해, 안전이 최우선 경영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 임·직원 및 건설현장 관계자 등에게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나경균 사장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안전의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ZERO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송호석 환경청장, 우분연료 활용기업 애로사항 청취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9일 군산 소재의 SCG에너지(주)에서 관내 에너지 생산 3사와 우분연료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환경청과 우분(牛糞)으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김제자원순환센터, 동 원료로 전기·난방에너지를 만드는 SCG에너지(주), OCI SE(주), 한화에너지(주)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기업들은 우분연료를 활용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의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환경을 위한 우분연료의 사용에 감사하며, 연료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는 3월말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은 9일 군산 소재의 SCG에너지(주)에서 관내 에너지 생산 3사와 우분연료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우분(牛糞)의 고체연료화 시설을 준공하였고, 연내 상시 기업들에 우분연료를 납품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중기청, 춘향제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제품 할인전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을 5월 동행 축제가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남원 춘향제와 연계해 광한루원, 삼장가 일원에서 지역 소상공인제품 특별 판매전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제94회 남원 춘향제'와 함께 진행되는 5월 동행축제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과 농축산물 할인 판매전 등 160여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 동안 지역 상인들과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동행

축제와 협력하여 올해 처음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판매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태용 청장은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동행축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는 살맛나는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